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브랜드 매니페스토

레니 크라비츠와 안야 테일러 조이 출연

예거 르쿨트르는 약 200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타임피스에 장착되는 칼리버를 설계, 제작 및 조립해 왔습니다. 그랑 메종 매뉴팩처에서는 예거 르쿨트르 타임피스에 장착되는 무브먼트뿐 아니라 다른 고급 워치메이킹 브랜드를 위한 무브먼트를 선보이며 점차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인내, 겸손, 노력, 탁월함을 향한 헌신이라는 원칙에 따라 몇 대에 걸친 엔지니어, 워치메이커, 장인들은 탁월한 노하우로 이루어진 유산을 구축해 왔으며, 이제 예거 르쿨트르는 190 년의 역사를 향한 경의의 표현으로서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가려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1833 년부터 1,3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제작하며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워치메이킹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여러 특허를 비롯하여 40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토록 독보적인 창의성을 여러 세대에 걸쳐 조심스럽게 육성 및 전승해 왔습니다. 설계, 생산, 조립, 마감, 장식을 아울러 180 가지의 기술을 보유한 예거 르쿨트르는 뛰어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의 영역을 개척합니다. 이렇게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서의 명성을 얻은 예거 르쿨트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탁월함이 탄생하는 순간을 향한 찬사

어떤 창작 활동이든 탁월함이란 인내와 헌신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매일 꾸준하게, 작은 성과를 이어 나가며 재능을 기술로 갈고 닦음으로써 위대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집중과 노력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영감의 순간은 수년간의 배움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전문성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셀 수 없을 만큼 작은 것들부터 연습하고 완벽하게 다듬어 나감으로써 구축해나가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단계에 따라 진화합니다. 이는 음악, 예술, 공연, 문학, 디자인뿐 아니라 워치메이킹 분야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거 르쿨트르의 매니페스토이기도 합니다.

2023년 봄, 예거 르쿨트르가 탁월한 재능을 지닌 글로벌 앰버서더, 레니 크라비츠(Lenny Kravitz)와 안야 테일러 조이(Anya Taylor-Joy)가 함께하는 새로운 캠페인,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The Watchmaker of Watchmakers)'를 선보입니다. 성공의 진정한 기원을 담은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노력, 하나의 제스처, 움직임, 하나의 음악, 카메라 앞에서 표현되는 한 마디를 완벽하게 구현해 내기 위해 수년간 이어지는 연습의 과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캠페인의 중심 주제를 다룬 짙은 영상에서, 안야와 레니는 미니멀한 배경 앞에서 공연을 펼치며 두 아티스트를 향해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엮어낸 이번 캠페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수월해 보이는 이들의 독창성 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력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며, 이는 자연스레 워치메이킹 기법과 장인 기술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 영상은 프랑스의 비주얼 아티스트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 중인 캉탱 드롱지에(Quentin Deronzier) 감독이 연출하였습니다. 꿈 같은 정경 속에 현실, 비현실, 초현실의 개념을 자유자재로 담아내는 탁월한 기법으로 잘 알려진 드롱지에는 촬영장 세트 디자인은 물론 분위기를 오롯이 담아낸 조명까지도 설계했습니다. '마운트(Mount)'라는 제목의 사운드트랙은 프랑스의 음악 듀오이자 세계 일렉트로니카 댄스 장르의 신예로서 내면을 관통하는 듯 거의 신비주의에 가까운 사운드로 문화와 대륙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청중들로 하여금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뮤지션으로 손꼽히는 더 블레이즈(The Blaze)의 작품입니다.

탁월함이라는 은유

새로운 캠페인에서 레니는 우아하고도 정교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투르비용 핑크 골드, 그리고 안야는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리베르토 듀에토 스몰 핑크 골드를 착용했습니다.



두 앰버서더의 인물 사진으로 더욱 풍성함을 더한 이번 캠페인은 캐나다 사진작가 리처드 피브스(Richard Phibbs)의 렌즈로 담아냈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 중인 피브스는 고요한 힘과 다정함이 깃든, 감성적인 울림을 자아내는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명 아래 숨이 멎을 듯한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두 인물 사진에는 사진작가의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예술적 시각을 바탕으로 두 앰버서더가 지닌 고유의 개성과 함께 시대를 초월하는 리베르소 특유의 스타일 또한 오롯이 담아냅니다. 인물 사진과 함께 각 타임피스의 무브먼트 클로즈업 이미지가 함께 등장하여 모든 예거 르쿨트르 타임피스에 깃든 독창적인 열정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한층 강조합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투르비용은 고전적인 아르데코 스타일의 선레이 브러싱 처리된 앞면 실버 다이얼과 정교한 장식이 돋보이는 세미 스키텔론 뒷면 다이얼을 갖추고 있으며, 세컨드 타임존과 함께 낮/밤 인디케이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혁신적인 투르비용이 새롭게 장착된 만큼 기계적 정교함이 더욱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두께가 단 9.15mm 에 불과한 슬림하고도 우아한 디자인의 타임피스입니다.

낮/밤 디자인이 돋보이는 리베르소 듀에토 스몰은 색다른 분위기를 지닌 두 개의 다이얼로 시간을 표시하며, 폴리싱 처리된 골드 링크를 갖춘 브레이슬릿으로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앞면 실버 다이얼은 선레이 브러싱으로 여전히 클래식한 매력을 전하고, 동시에 뒷면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가드룬 장식이 극적인 블랙 래커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31년 첫선을 보인 이후, 리베르소는 계속해서 혁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새로운 캠페인에 등장하는 두 모델 모두 재해석을 향한 무한한 잠재력의 정수를 담은 타임피스로서 기술 개발 및 미학적 디자인 모두에서 끊임없이 탁월함을 지향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탐구 정신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시간, 인내, 연습을 통해 재능을 갈고닦다

복잡한 내면을 지닌 인물을 연기하며 쉽게 만나보기 힘든 매혹적인 수준의 강렬함을 보여 준 안야 테일러 조이는 동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지닌 배우입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메시지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열정이 있다면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에 굴복하지 않죠. 제가 하는



예술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이를 통해 숨을 쉰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집중이 있기에 계속해서 기분 좋게 배움을 지속해나갈 수가 있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록 뮤지션이자 뛰어난 배우 겸 성공적인 디자이너로도 활약 중인 레니 크라비츠는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탁월함을 향한 자신의 발자취에 대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작 과정에서 최대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상황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벌어지기를 원하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음악과 작품들로 꿈꾸며 보냅니다. 프로가 되기 전에 배우고 연습했던 세월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금도 매일 이 학습은 지속되고 있고요.”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위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3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0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는 190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위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안야 테일러 조이 소개

1996 년 마이애미에 거주하던 영국계 아르헨티나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안야 테일러 조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런던에서 자랐으며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15 세까지 발레를 배운 그녀는 배우로 전향하여 2015 년 로버트 에거스(Robert Eggers)의 *더 위치(The Witch)*에서 놀라운 연기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에드가 라이트(Edgar Wright)의 *라스트 나잇 인 소호*에서 매력적인 노래 실력을 드러냈으며 그 후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0 년 넷플릭스 흥행작 *퀸스 갬빗(The Queen's Gambit)*으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베스 하먼(Beth Harmon)이라는 체스 천재 역할을 매력적으로 연기한 그녀는 골든 글로브, 미국 배우 조합상, 크리티クス 초이스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그 후 로버트 에거스의 *노스맨(The Northman)*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2022 년 안야는 크리스찬 베일(Christian Bale), 마고 로비(Margot Robbie)와 함께 데이비드 O. 러셀(David O. Russell)의 암스테르담(Amsterdam)뿐만 아니라 랄프 파인즈(Ralph Fiennes), 니콜라스 홀트(Nicholas Hoult)와 함께 마크



미로드(Mark Mylod)의 코미디 호러 영화 더 메뉴(The Menu)에 출연하여 이후 골든 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안야는 최근 2024 년 5 월 개봉 예정인 매드 맥스(Mad Max)의 프리퀄 *퓨리오사(Furiosa)* 촬영을 마쳤습니다.

레니 크라비츠 소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록 뮤지션 중 한 명인 레니 크라비츠는 30 년 이상의 음악 활동을 통해 장르와 스타일을 초월했습니다. 소울과 록, 펑크를 즐기며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 영향을 미친 작가이자 프로듀서, 멀티플레이어인 그는 그래미상을 4 회 연속 수상했으며 '최우수 남성 록 보컬 퍼포먼스' 부문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4 천만 장이 판매된 11 장의 스튜디오 앨범 외에도, 이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는 흥행작인 *헝거 게임(The Hunger Games)* 및 *헝거 게임: 캐칭 파이어(The Hunger Games Catching Fire)*에서 시나(Cinna) 역을 맡아 배우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크라비츠는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영화 *프레스스(Precious)*와 *버틀러(The Butler)*에도 출연했습니다. 그의 크리에이티브 기업인 크라비츠 디자인(Kravitz Design Inc.)은 호텔 부동산,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개인 주택 및 전설적인 고급 브랜드를 포함하여 주목할 만한 벤처 기업으로서 인상적인 포트폴리오를 자랑합니다. 그는 또한 록 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뮤지션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패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받아 2022 년에 미국 패션디자이너 협회(CFDA)로부터 '패션 아이콘 상' 을 받았습니다. 크라비츠는 독특한 암석 사진을 소개하는 책인 *플래시(Flash)*의 저자이기도 하며 그의 회고록 *렛 러브 룰(Let Love Rule)*은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베스트셀러로 올랐습니다. 크라비츠는 2018 년에 11 번째 정규 앨범 *레이즈 바이브레이션(Raise Vibration)*을 발매했습니다. 최근에는 2023 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Hollywood Walk of Fame) 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크라비츠는 2023 년 새로운 앨범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